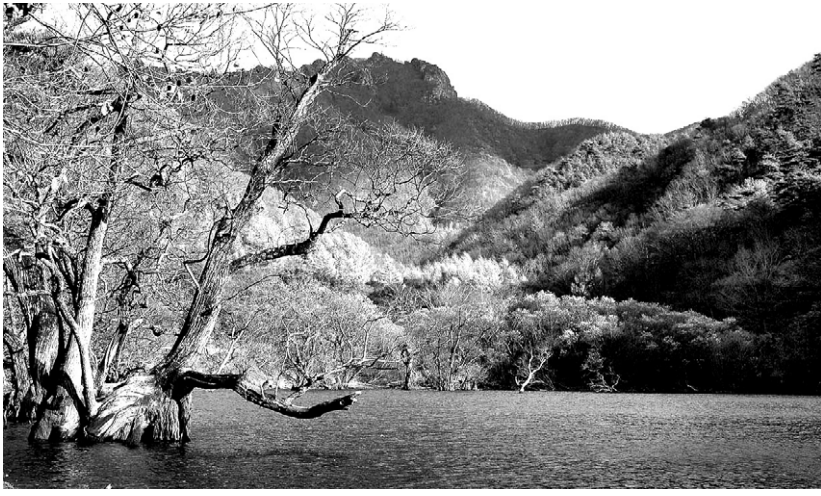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흠여짐 없이 성스러운

다르마를 수행해야 하리니

죽은 뒤에 내가 가는 길을 안내하리라.

건강과 힘을 가진 젊은 날의 전성기에는 보다 즐거운 인생을 원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죽음을 유혹하여 피할 수 없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한들 뇌물로 죽음을 살 수 없고, 권력을 가진 사람일 지라도 그 힘으로 한순간이나마 죽음을 누를 수는 없습니다.

죽음도 장군도 무장해제시키니 막강한 무기로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수행에서 얻은 체현만이 죽음의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둘러 수행하십시오. 나이가 들어 몸의 기능과 지적 기능이 무너지기 전에 말입니다. 그릇된 생각에 빠지거나 세속의 삶에 어리석게 끌려 다니지 말고, 다르마 수행에 헌신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수행에 정진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의 순간에 받은 가르침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종단 개혁 마무리... 종교평화선언 재추진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운영회의 열고 사업기조 밝혀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이하 결사추진본부)이 올해 사업 방향과 기조를 내놨다.

결사추진본부는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해 사업 총평과 올해 추진 사업들을 보고하고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

지난해 사업의 총평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이날 결사추진본부 총재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은 지난 한해 다가온 위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위기를 참회하고 종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결사추진본부가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성과를 다지고 사회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는 종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참회·안정·쇄신"이라는 기조로 사업을 전개해 온 결사추진본부는 올해 대승불교의 가치를 현대 사회에서 구현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자성과 쇄신 결사가 일선 사찰 현장과 종도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대중공사를 직할교구, 교구본사 단위까지 확대 시행하며, 상·하반기 두 차례 야단법석을 통해

한국불교의 근본 문제와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야단법석은 4월과 7월 각각 '바람직한 불교관과 실천론 확립을 통한 의식개혁', '새로운 종단·사찰 운영 모델'을 주제로 열린다.

3월 28일 생명평화 1000일 정진 1주년과 8월 9일 500일을 맞아 대승불교에 맞는 신앙 활동이 전 종도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진 운영단을 구축할 예정이다.

호법·복지제도 쇄신안 마련

3월 중 승가 청구 제정

1000일 정진 등 유지

"대승불교 현대적 구현 최선"

종단 중무기관의 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도 추진된다. 중앙종단 행정 체계에 재정립이 이뤄지며, 교구중회의 구성과 역할, 지방교구 확정 및 교구본사 운영에 대한 쇄신안을 마련한다.

또한 법계에 따라 승려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종단 소임에 대한 자격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인재의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조계종 결사추진본부는 2월 6일 운영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기조와 예산을 확정했다.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호법제도의 변화 역시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결사추진본부는 호법부 자율성 보장을 비롯해 △호법부장 임용 방식 개선 논의 △기소독점 및 남용 제한을 위한 위원회 설치 △호법위원 재관 공개 △양형기준 정립 등을 골자로 한 호법제도 쇄신안을 논의 중에 있다. 현재 3차 논의까지 진행됐으며, 간담회와 좌담회 등을 거쳐 3월 중 완성된다.

시대에 맞는 승가 청구 제정도 올해 목표 중 하나다. 청구에는 수행, 생명, 평화, 나눔, 문화 등 5대 결사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르면 3월경 쇄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집행부에 송부될 계획이다.

각 위원회별 세부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화쟁위원회는 종단 난 논란으로 유보된 '종교평화선언문' 발표를 재추진하며, 화쟁사상 확산을 위한 아카데미 강좌와 연구 사업을 진행한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와 북한불교문화 재조사 등을 주도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본부장 도법 스님은 "1000일 정진과 무차대회, 야단법석 등을 통해 새로운 대승불교 운동을 전개하려 한다"며 "대승불교 가치를 현대 사회에 구현하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평창 스페셜 올림픽에 자비를 전하다

2013평창스페셜올림픽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이 시상자로 나서 선수들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시상식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나경원 위원장, 티모시 슈라이버 회장 등과 환담을 가졌다. 사진제공=조계종

한일불교협 부회장에

도정·향적 스님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의 새 부회장에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과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향적 스님이 선임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자승 스님, 이하 한일불교)는 2월 7일 서울 AK원 컨벤션센터 아델리아홀에 제33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과 함께 신입 부회장과 상임이사를 선임하고, 올해 사업을 확정



도정 스님



향적 스님

했다. 상임이사에는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과 일승종 총무원장 혜정 스님이 선임됐다. 한일불교는 올해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각 4억 5,762만 6,158원으로 확정했다. 김주일 기자

수행 다변화 위한 '삼장원·염불원' 설립

조계종 교육원, 제정안 입법예고

안거 수행풍토 다변화를 주장하며 제안한 삼장원과 염불원 설립이 가시화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월 7일 종단 홈페이지에 '삼장원·염불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삼장원·염불원법'에 따르면 모든 종단 사찰은 경·율·론 등 삼장과 선어록을 연찬하는 삼장원과 염불과 참법수행을 하는 염불원을 설립할 수 있다. 특히 총림 추진 사찰 내 염불원이 있을 경우 총림의 염불원으로 인정돼 설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안거와 입방 공지, 입방 자격, 청구 등의 세부 내용도 명문화 됐다. 삼장원과 염불원을 운영하는 사찰 주지는 매년 하안거

와 동안거 1개월 전 정진할 분야와 교제, 교수, 방부 인원을 공지해야 한다. 승남 7년 이상 스님부터 입방이 가능하다.

삼장원장과 염불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됐으며, 자격은 비구 대덕, 비구니 혜덕 이상의 스님으로 위촉은 운영위원장인 사찰 주지가 한다. 총림의 경우 삼장원장과 염불원장의 임명 권한은 방장에 있다.

법 제정 취지에 대해 교육원은 "삼장원·염불원법 제정안"은 종헌 110조와 111조에 근거한 삼장원과 염불원을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해 종단의 수행 가풍을 진작하고자 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삼장원·염불원법'의 입법 예고 기간은 2월 27일까지이며, 관련 의견은 이메일과 서면으로 접수한다. 신종일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926호 5면의 '지관 스님 1주기... 추모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기사 중 '리처드 맥브라이드 하와이 대 교수, 요한 조르겐센 호주 국립대 교수, 암준현 미시간대 교수, 페트릭 울만'을 '리처드 맥브라이드 브링햄 영대 교수, 존 조르겐센 호주 국립대 교수, 안준영 미시간대 교수, 페트릭 울만 금강대 교수'로, <불교종단발달사>를 <불교교단발달사>로 바로 잡습니다. 또한 '보은공원 유지사업' 기사 중 '올해 4차 산문을 신축'을 '올해 4차 사업으로 산문을 신축'으로 바로 잡습니다.

개 테라와다

교

모든 존재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아시아 뿐 아니라 유럽·북미·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쳐 종교·인종·문화를 초월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테라와다불교가 한국에서 2009년 10월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제 교학과 수행이 함께하는 '테라와다 담마스쿨'을 개교합니다.

신입생 모집안내

- *모집대상: 테라와다불교의 가르침에 관심 있는 모든 출·재가자 및 일반인
*개학일: 2013년 3월 8일(금) 오후 2시
*학제 및 강좌: 2년 과정(4학기), 주 1회 70분씩 3강좌
*강의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50분
*교과목 편성

Table with 5 columns: Course, 1-1 semester, 1-2 semester, 2-1 semester, 2-2 semester. Rows include '제1교시', '제2교시', '제3교시' with their respective topics.

(방학 중 4박 5일 집중수행 프로그램 운영)

*강사진

이찬 진용 판나와로(한국테라와다불교 이사장) · 나나로카(경주 마하보디 선원장)스님, 정원 김재성(명상의 집 '자애' 지도법사) 외 한국테라와다 교단 스님 및 재가불자 다수.

- *제출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접수기간: 2013년 3월 8일까지
*접수처: 한국테라와다불교 사무국(원서교부 및 접수 문의처와 동일)
*등록금: 자율보시
*수료자 특전
1 스리랑카·미얀마·태국의 정규테라와다불교대학 연계 추천
2 테라와다불교국가 명상센터에서의 수행 주선 및 지원
3 한국테라와다 소속 선원의 각종 수행프로그램에 정회원자격 부여
4 테라와다 수행과 교학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 제공
5 테라와다 수계 및 팔리어 법명 수여
*원서교부 및 접수문의
1 홈페이지: www.theravada.kr에서 원서양식 교부
2 문의전화: 010-4546-2840, 010-9135-8277
3 주소: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남산 대원정사 신관 3층)



한국테라와다불교 Theravāda Buddhāsāna in Korea

